심덕섭 고창군수, 종합민원과 민원담당자 간담회

고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군수실에서 '군수와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심덕섭 군수가 민원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종합민원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심 군수는 자긍심을 갖고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민원업무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업무 처리 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자들이 감정노동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성실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의료원, 남원 사회복지시설 · 기관 대표자 간담회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이 지난달 26일, 남원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1개소의 남원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관리 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사회공헌 활동,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전북형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등 남원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오진규 원장은 "남원의료원은 지리산권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 의료복지 통합 제공 모델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OCI 군산공장, 어려운 이웃 여름나기 선풍기 나눔

OCI(주) 군산공장(공장장 표상희, 노조위원장 장육남)은 지난달 30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30대(2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저소득 가구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기부된 선풍기는 관내 폭염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표상희 OCI(주) 군산공장장과 장육남 노조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응원하고자 선풍기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전달된 선풍기가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삼권 소룡동장은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선풍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많았는데,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내 소외계층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OCI(주) 군산공장은 선풍기, 전기매트, 떡 등의 기부로 지속적인 이웃돕기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 미래 인재 미국 · 호주 첫 출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인턴 참여자 2명한상기업서 인턴 수행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참여 청년 2명이 해외 인턴 근무를 위해 지난달 3일과 30일 각각 미국, 호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인턴십 전문기관인 해외 인턴십 교류센터와 협력하여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희망하는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해 해외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신규사업이다.

올해 참여자로 선발된 전북 청년 2명은 지난 5월 최종 선정 이후 6월부터 개별 참여자의 희망 국가 및 업종, 직무 분야에 따라 미국, 호주 소재 한상기업 매칭을 진행해 왔다. 이후 국가별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현지로 출발해 6개월~1년의 근무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진흥원은 해외 인턴십 참여자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지원국가를 다양화하고, 참여자의 국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매칭을 진행했다.

참여자 이환희씨는 앞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식품 종합 수출·입 기업에서 영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한희정씨는 호주 시드니 지역 비즈니스 컨설팅 및 유통회사에서 통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환희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해외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학교 공지 사항을 통해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며,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값진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장은 "진흥원의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으로 전북 청년의 해외 인턴십 경험을 지원하는 첫 성과를 맞게 되어 기쁘다."며, "해당 경험이 앞으로 전북의 뛰어난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새일센터-전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약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7월 31일 전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배형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요원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과, 재직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정희 원장, 배형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배형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시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일자리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달 31일 청렴한 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장 및 발주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25여명이 참석해 청렴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 시공사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육시설공사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시설물로, 안전과 품질은 물론이고 청렴한 공사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 발주담당자와 시공사는 상호 협력하여 청렴한 협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시공사가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추영곤 장수교육장은 "이번 협약서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진행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청렴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러한 청렴한 간담회와 협약서 작성 등이 교육시설공사 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설물의 안전성과 품질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착한 가게 17호점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서덕교)는 지난달 31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발굴한 굽네치킨 2호점(대표 황성훈)에 착한가게 17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덕교 공동 위원장은 "도통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많은 업체에서 나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굽네치킨 2호점에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치킨을 정기적 제공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산외면,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정읍시 산외면은 오는 8월 12일까지 마을별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몸이 불편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것이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공익직불제가 농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외면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승현 제23대 남원소방서장 취임

남원소방서는 제23대 소방서장에 김승현 서장이 8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서장은 1974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 서석고, 美 오클라호마 주립대(석사)를 졸업했으며, 소방간부후보생 14기로 공직에 입문, 광주소방학교 전임교수,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국회계장, 중앙소방학교 훈련계장, 소방청 119구급과 구급정책계장, 소방청 차장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같이 김 서장은 지난 20여 년간 행정업무와 현장 지휘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소방 발전을 위해 노력,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움은 물론 온화한 성품과 리더십으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지휘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사에서 김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남원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중경 열매마을 대표, 완주군에 성금 1억원 전달

㈜열매마을(대표 강중경)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수해민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운주면이 고향인 강중경 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성금을 쾌척했다.

강 대표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있지만,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액을 선뜻 기부해 주신 ㈜열매마을 강중경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열매마을은 2006년 설립된 경기 광명시에 소재 국내 최고의 견과류 및 건조과일류를 수입, 유통하는 전문업체다.

/완주=염재복기자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 수재민 돕기 바자회'

완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수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고자 '사랑의 일일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은 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모인 81만 4,000원의 수익금 전액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완주군 저소득 가정 및 호우 피해민 돕기에 사용될 방침이다.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월에도 치매 어르신들을 돕는 등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군 덕유환경개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유)덕유환경개발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길호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꾸려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장학금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유)덕유환경개발은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주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분야에서 일하며 이웃들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역 사회와 발맞춰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